

# 클래식 불모지에 '음악나무' 심다



“비발디의 곡 ‘사계’ 가운데 오늘같은 겨울밤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가요에도 쓰였던 곡이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1일 저녁 나주의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회를 찾은 이들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었다. 신정문·이수연·김재은·윤소희 씨로 구성된 ‘랑 현악4중주단’은 이날 무대에서 하이든의 ‘현악4중주 세레나데’ 등을 들려줬다. 비올리스트 신정문씨가 한국 한곡이 끝날 때마다 해설을 덧붙여 초보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회를 찾은 이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대부분 클래식 연주를 처음 접해보는 이들도 있었다. 공연 후에는 연주자들과 사진도 찍고 간단한 먹을거리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랑 현악4중주단’은 26일에는 나주 영산포 중앙교회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클래식 음악회를 주관한 곳은 나주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무지크 바움’이다. 특히 클래식 불모지나 다름 없는 나주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소통하는 힘들지만, 보람있는 여정을 걷고 있는 단체다. ‘무지크 바움’이라는 이름 역시 독일어로 ‘음악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무지크 바움’은 사회운동을 했고, 현재 나주에서 제재소를 운영중인 조기홍씨를 중심으로 뜻을 이룬 이들이 의기투합해 꾸리고 있다. 처음 출발은 음악을 함께 듣는 동호회였다. 그러다 나주 지역의 문화 토양을 조금씩 다지

나주 무지크바움 ‘문화 트러스트’운동

해설 곁들여 초보 관객들 향연속으로

찾집·마을회관 등서 ‘하우스 콘서트’

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이 생겼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클래식 음악을 접하다보면 귀가 조금씩 열리고, 물이 스며들듯 감동을 받는 이들이 생겨나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경제적 낙후가 문화적 낙후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를 ‘문화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무지크 바움’의 대표 콘텐츠는 이날 열린 음악회와 같은 하우스 콘서트다. 나주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진행하는 하우스콘서트는 정식 공연장을 벗어나 교회, 성당, 사찰, 마을회관, 찻집, 가정집 등 어디서든 편이 벌어진다. ‘겨울 속의 봄’을 주제로 CNS금관앙상블이 출연하는 2월 연주회는 나주 금남면사무소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3월에는 목관 앙상블의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무지크 바움’은 굵직한 클래식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나주 현대 음악제’를 열었다. 광주에서도 좀처럼 열리기 어려운 축제로 김선철·정현수 등 지역의 젊은 작곡가들과 서울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열어온 박창수씨 등이 참여했다.

또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 등으로 유명한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의 음악 세계를 짚어보는 음악회를 열었고 어린이날에는 ‘피터와 늑대’, ‘동물의 사육제’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음악회를 연 것도 무지크바움이었다.

올해 역시 다양한 클래식 음악회가 마련된다. 우선 나주문화회관에서 신춘음악회를 준비중이고 전교조 등 지역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5·18 5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 계획이다. 3차례 정도 진행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음악회’ 역시 무지크 바움의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다. 고음악 연주회, 하프 연주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조기홍 대표는 “이날 교회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은 단 몇명만이라도 감동을 받았다면 그걸로 무지크 바움이 활동하는 의미를 찾는다”며 “최고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최고의 연주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美 미니멀리즘의 거장 3인 광주 전시

르윗·맨골드·샌드백 작 6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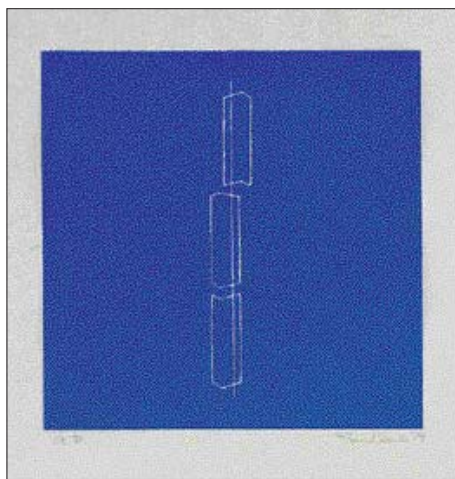
신세계갤러리 내달 8일까지

20세기 중반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계승·발전시킨 작가는 미국의 솔 르윗(1928~2007년), 로버트 맨골드(74) 그리고 프레드 샌드백(1943~200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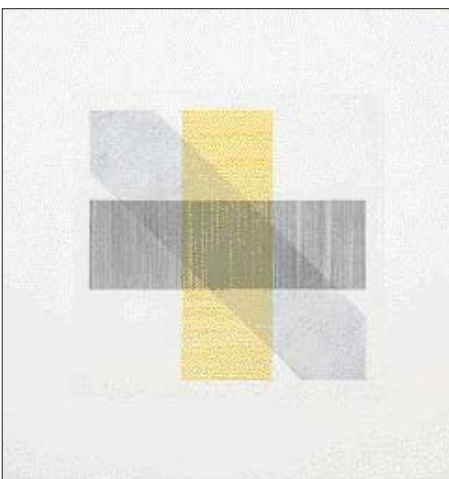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6~2월8일 기하학적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이들 미국 작가들의 작품 68점을 선보이는 ‘Geometric Dimensions-미국 기하추상 3인전’을 연다.

솔 르윗은 빨강, 파랑, 노랑, 검정을 기본 색채로 제한하고, 직선으로 그려진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예술의 비물질화를 지향했다. 단순한 형태와 색채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색과 직선·사선의 집합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건축을 전공한 로버트 맨골드는 건축적 구조에 대한 관심을 삼각형 혹은 계단형과 같은 비정형 형태로 표출했다. 부분이 온전한 결합을 통해 하나의 건축물이 되듯, 단순한 면과 선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묘한 통일성을 준다.



프레드 샌드백 작 '무제'



솔 르윗 작 'No 17'

프레드 샌드백은 실을 이용해 공간에 드로잉을 하는 퍼포먼스를 주로 한 작가다. 그의 드로잉 선들은 자율적이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극도의 간결한 특징을 보여준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현대 미술을 해석하는 하나의 코드인 미니멀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1630.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미니멀리즘(minimalism)=작품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은 제거하는 미술양식으로 구성요소, 표현방법, 표현수단의 단순함과 간결함이 특징.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미술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됐다.

## 문화예술인 37% “창작 수입 없다”

문광부 2009 실태조사

문화예술인의 37.4%가 지난해 자신의 창작 활동에 의한 수입이 없었다고 조사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작활동에 의한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2006년 26.6%였지만 지난해는 37.4%로 높아졌다. 이 실태조사는 작년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음악·연극·무용·영화·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200명씩 모두 2천 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창작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을 포함해 월평균 창작활동 수입이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06년 55.0%에서 지난해 62.8%로 높아졌으며 월평균 201만원 이상은 2006년 23.4%에서 지난해 20.2%로 낮아졌다.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 직장생활이나

부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합칠 경우의 개인 월평균 수입은 301만원 이상(29.1%), 201만~300만원(18.5%), 151만~200만원(13.0%), 101만~150만원(9.6%), 100만원 이하(14.5%), 없음(8.4%) 등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 월평균 수입은 401만원 이상(37.8%), 301만~400만원(13.6%), 201만~300만원(17.2%), 151만~200만원(9.2%), 150만원 이하(12.3%)의 응답 분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박덕중 씨 ‘박재삼 문학상’ 시부문 대상

‘2010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출간

한국시연구협회 부회장과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덕중(68) 시인이 최근 ‘제3회 박재삼 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재삼 문학상’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인 박재삼 시인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한 상이다. 한국시연구협회가 주최하고, 오송시 남송회와 한국문화회회가 주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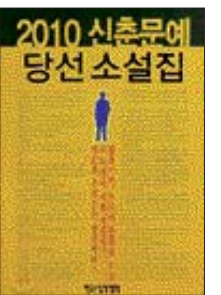
무안 출생인 박씨는 197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광주전남향토시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시 문학상 대상, 이육사 문학상, 조지훈 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빛을 검은물’, ‘소나기’, ‘시간의 강변에서’ 등 지금까지 8권의 시집을 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을 한데 묶은 ‘2010 신춘문예 당선소설집’이 출간됐다. 한국소설가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작품집으로 전국의 일간지에서 모집한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을 모았다.

이번 작품집에는 광주일보 당선작 정보고씨의 ‘시작점, 0’을 비롯해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전국 각지의 우수한 신문을 통해 당선된 작품 13편이 실려있다.

또 작품집에는 당선작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심사평과 작가의 다부진 포부를 펴려한 당선소설까지 곁들였다. (한국소설가협회·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 내돈내산

080-080-8802

**이태리가구 전문점 스페이스**

공주광역시 동구 함동 59-11, 스페이스 가구점 53구, ☎02-220-7765-7567

공주지사 전시관 : 가구점에 넘겨주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상품

1. 신상품 100% 내돈내산

2. 신상품 100% 내돈내산

3. 신상품 100% 내돈내산

4. 신상품 100% 내돈내산

5. 신상품 100% 내돈내산